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8. 27.(목) 14:30 (2026. 8. 28.(금) 조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제14차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 참석

- 기술·기후 변화 대응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 강조
- 태국 현지에 취업한 청년들과 현장 간담회 개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7일(현지시각) 태국에서 개최된 제14차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본 회의는 아세안 11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고용노동분야 대표들이 관련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각국 대표들은 AI 등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녹색 전환등 **환경변화 속에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회원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태국(개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동티모르

김영훈 장관은 이날 수석대표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 정책을 역설했다. 즉 AI시대 산업전환 과정에서 전국민의 안정적인 취업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고용영향 모니터링, AI 활용능력 배양 직업훈련 및 평생학습 강화 등을 포함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위한 **첫 취업 지원**과 **기업 주도 현장훈련** 확대, ▲중장년의 재출발을 위한 산업전환 특화훈련과 취업알선을 **통합한 재취업 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이번 회의 주제인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AI 분야에서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으로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인재 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며, ▲전국민이 시공간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을 구축해 디자인, 기계, 전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세안+3 회원국 수석대표들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아세안+3 국가 간 고용노동 분야의 협력을 확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에는 '**양질의 완전고용, 녹색 및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인적자원 개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보장제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내용과 함께 '**직업훈련, 노동시장 정보, 일의 미래에 관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지지에 대한 감사**' 등이 담겼다.

김 장관은 "**아세안의 감사 표명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아세안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긴밀한 연대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히면서, "고용노동 분야에서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합의 내용에 따라 대한민국도 아세안 국가들의 **포용적 고용정책 등 관련 정책 개발과 시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와 더불어 김 장관은 **양자회담**을 통해 줄라판 아몬위왓(Julapun Amornvivat) **태국 노동부 장관**과는 **AI 관련 고용 및 직업훈련 정책 그리고 고용허가제 협조 등**에 대해 논의했고, 우에노 겐이치로(Ueno Kenichiro)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는 **정년 연장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질베르 웅보(Gilbert Houngbo) **ILO 사무총장**과는 **ILO의 주요 고용노동 의제 추진 현황 및 한-ILO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 날인 8월 28일에는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해 **태국에 취업한 한국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첫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K-유스개런티**'와 '가칭**플레이그라운드**' 등 새로운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K-무브(move) 스쿨**'과 '**국내 재취업지원**'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들의 현지 경험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ASEAN+3 노동장관회의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연설문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국제개발협력팀	책임자	과 장	장중서 (044-202-7162)
		담당자	사무관	김동욱 (044-202-716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ASEAN+3 노동장관회의 개요

□ **(일시·장소)** '26.8.27(목) 09:00~12:30, 태국 방콕 (두짓타니 방콕 호텔)

□ **(의제) 아세안 인적자원 발전: 글로벌 인정을 향한 역량 인증**
(Advancing ASEAN Human Capital: Skills Certification towards Global Recognition)

○ 급변하는 산업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노동정책 공유 및 아세안 역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직업능력인증제도 개발 추진

□ **(참석자)** 한국·일본 장관, 중국 차관, 아세안 장·차관, 아세안 사무총장 등

* **아세안+3 : 한국, 중국, 일본 + 아세안 11개국** [태국(의장),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동티모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 **(대표연설) 인사말씀·주제연설·마무리말씀** 등 각각 알파벳 순에 따라 **중국·일본·한국 순**으로 진행

일시		주요 내용
8.27(목)	09:00~09:30	• **(개회) 인사 말씀** (태국, 중국→일본→한국 順)
	09:30~09:35	• **(의제1)** 본 회의의 의제(의제1~8) 채택
	09:35~09:55	• **(의제2)** 고위관리회의 결과보고*(장관회의 직전에 진행)
	09:55~10:10	• **(의제3)** 기타 아세안 장관회의 결과 공유
	10:10~10:30	**휴식**
	10:30~11:30	• **(의제4) 주제 연설(14개국)**
	11:30~11:45	• **(의제5) 공동선언문 채택**
	11:45~12:00	• **(의제6)** 기타 논의(필요시 진행)
	12:00~12:05	• **(의제7)** 차기 장관회의 관련(장소·일정) 결정 · 차기 의장국: 동티모르
	12:05~12:10	• **(의제8)** 제14차 장관회의 결과보고서 채택
	12:10~12:30	• **(폐회) 마무리 말씀** (중국→일본→한국, 태국 順)
	12:30~13:30	• 공식 오찬

* 아세안+3 국가 간의 협력사업(국제포럼·컨퍼런스, ODA 등) 현황 및 계획 공유

고용노동부 장관 연설문 * 실제 현장 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음

주제: 아세안 인적자원 발전-글로벌 인정을 향한 역량 인증

존경하는 의장(줄라판 아몬위왓 태국 노동부 장관)님,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 일본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아세안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제14차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태국 노동부 장관님(줄라판 아몬위왓)과
아세안 사무총장님(까으 끔 후은, 캄보디아 국적)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AI 등 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녹색 전환(GX)으로
일자리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는 중입니다.

AI가 단순·반복 업무를 대체하면서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청년 등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철강 등 고탄소 업종의 탄소중립 전환 충격은
해당 업종의 위기를 넘어
지역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

이처럼 급속히 진행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고용노동정책의 비전으로 삼고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통해 AI시대에 대응하는
고용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고용영향 모니터링, 직업훈련 및
평생학습 강화, 중장년층 전직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첫 취업 지원과 기업 주도 현장훈련을 확대하고
정부업무, 사회서비스, 중소기업 AI 코치* 등
다양한 공공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 AI훈련센터에서 중소기업에 방문해 AI 훈련을 코치하는 직무에 청년 할당

중장년이 다시 출발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는,
산업전환 특화훈련과 일경험 그리고 취업알선까지 통합한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중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험적용 기준을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반한 노동시간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하여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국인 인권리더를 지정해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차별 없이 보호할 것입니다.

<2. 인적자원 발전-역량인증 관련 직업능력정책>

대한민국은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직업훈련과 역량인증을 취업에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적인 직업능력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일배움카드를 7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지원하여
개인이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AI 분야에 있어서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K-디지털 트레이닝을 지원하여
즉시 현장 투입 가능한 실무인재 1만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민이 시공간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을 구축하여
디자인, 기계, 전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훈련을 통해 AI 관련한 역량을 얻더라도
그 역량을 제대로 인증받아야만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표준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을 수준별로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1,100여개를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된 NCS 제도는 기업이 구인공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의 경력 증명과 기업의 인재 검증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나아가, 직업훈련과 능력인증이 취업과 긴밀히 연결되도록
직업훈련, 일자리매칭 등을 통합 지원하는 '고용24'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통합경력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는 물론 프리랜서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경력관리를 해주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안한 역량인증 개발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 정부는 NCS 등 직업능력정책과 고용24 관련 정책을
아세안과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3. 아세안+3과 연대 강화>

여기 모인 여러 나라가 각각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전환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묻고 함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아세안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먼저 2025년 기준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1조원(7억달러)을
투자해 1,100여개*의 ODA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고용노동분야 ODA 사업은
350억원(2,440만달러) 규모로 80여 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출처: ODA 통합누리집(우리부는 현재 30억 규모 5개 사업 지원 중)

직접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아세안+3 회원국의 인적자원개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HRD) 포럼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는 특히 한중일이 함께 분담하는
APT 기금을 활용하여 이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APT(ASEAN Plus Three) 기금은 한중일과 아세안 사무국이 3:3:3:1로 조성

한편 2026년 현재 11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아세안 국가에서 오고 있듯이
고용노동분야의 교류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아세안과 한중일 간의 연대를 강화하여
사람을 위한 기술, 존엄을 지키는 노동,
그리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향한,
진짜 성장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